

짠 젓갈 팔아 산 책으로 이웃사랑하는 '큰손'

책의 해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책의 인물' 류양선씨

책의해조직위원회가 책의 해를 기념해 이달부터 매달 선정하기로 한 '책의 인물'로 가장 먼저 뽑힌 사람은, 이름난 장서가도 방대한 분량의 저서를 남긴 저자도 아닌 비린내에 절은 젓갈장수 아줌마 류양선씨(61)다.

노랑진 수산시장 젓갈코너에 충남상회란 간판을 내걸고 올해로 18년째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류양선씨가 책의 인물이 된 것은, 남다른 이웃사랑을 책을 통해 실천했기 때문이다. 젓갈과 책과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지난 83년의 일. 어떤 은행원이 고아원에 보내기 위해 젓갈 3드림을 사가는 걸 보고 감동한 그는 바로 그 해부터 고아원과 양로원 등에 책을 기증해 이제 그 치성이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김치 안담아 먹는 가구수가 늘어나 사양길에 접어든 탓에 황석어젓, 멸치젓, 조개젓에 요즘엔 밀반찬까지 추가해 장사하는 류양선씨의 생활은 결코 풍족하지 않다. 그러나 불우 이웃돕기에 관한 그는 '큰손'이다. 신아원, 성남 소망의 집, 천사보육원, 천안 등대의 집, 경북 울진의 후포동부국민학교, 청운 양로원, 성서재활원, 혜명 양로원, 승덕재활원, 화랑보육원 등 그의 정성이 뻗은 곳은 다 열거하기가 벅찰 정도. 그는 책을 가까이할 엄두를 못내는 어린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장애자들에게 지금까지 모두 5천만원 상당의 책을 꾸준히 보내주고 있다. 비단 책기증만도 아니다. 학업성적은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곤란해 진학이 가로막힌 학생들에게 그는 장학금 주는 걸 일삼아왔다. 물론 부동산투기로 몇백억 상당의 재산을 모으고도 몇몇해 하는 모장관에게 고작 5천만원이 어디 돈축에나 들겠는

10년간 고아원과 양로원 등에 책기증을 하고 있는 젓갈아줌마 류양선씨가, 그간의 공을 인정받아 첫 '책의 인물'로 선정돼 지난 9일 책의해조직위원회로부터 선정패를 수여받았다. "못배운 한"을 풀기 위해 지금껏 5천만원 상당의 책을 기증한 그는, 학생들이 보내주는 감사편지를 읽으며 지난날의 고생을 잊고 산다.

가만 류양선씨에게 그 돈은 거액일 수 밖에 없다.

새벽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냉기가 온몸을 파고 드는 수산시장에서 두꺼운 파카와 작업복을 끼입고 보자기를 쓴 채 쭈구리고 앉아 모은 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그 급쪽 같은 돈으로 책을 사서 힘든 처지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류양선씨의 젓갈냄새 밴 돈이 천금에 못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강한 일을 하고서도 정작 그는 자신의 공을 아무 것도 아니라며 한사코 말문을 떼지 않는다.

"책기증은 못배운 한풀이와 같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책 아녀. 골치가 지끈거리도 책 읽으면 다 풀리는겨. 오른손이



류양선씨는 지난 9일 출현강당서 '책의 인물' 선정패를 수여받았다.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데 왜들 별 것도 아닌 일로 야단들인지 몰러."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선뜻 하기 힘든 선행을 하고서도 류양선씨는 "못배운 한이나 풀려고한 것"이라면서 물려드는 취재진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사실 그에게 배움의 때를 놓친 한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아픔이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도 깨끗한 자세와 활기가 유달라 보이는 그에게 중학교 가는 게 소원인 시절이 있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자 "여자는 공부해야 소용없다"는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쳐 "거름통에 책보가 몇번인가 빠진" 뒤에 그는 자신의 소원이 부질없음을 깨달았다. 그런 그에게 편히 책보고, 공부할 행운은 지금껏 단 한번도 찾아오질 않았다. 책보내기를 고집하는 것은 그의 공부에 맺힌 한풀이인 것이다.

생선상자에 재어놓은 얼음덩어리 덕에 동상이 걸리다 못해 기미가 까맣게 앉은, 최종학력이 국민학교밖에 안되는 류양선씨에게 그러나 어떤 강인한 힘이 느껴진다. 아마도 순탄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흔적인 듯싶다. 하지만 그에게 공부 못한 한은 정말 그의 말마따나 별게 아니었다. 촌부의 5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 시집갈 때까지 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에게 결혼은 밝은 내일의 시작이 아니었다.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류양선씨는 그 당시의 여자로서 겪어야 했던 수모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시집식구들의 눈총은 그래도 견딜 만한 것이었다.

남편은 말도 없이 그의 곁을 떠났고, 류양선씨는 생과부로 얼마를 지내야 했고 다시 남편을 찾았을 때 남의 배로 얻은 아들도 함께

철학개론

철학과의 만남

B.A. 브로디 지음/이병욱 옮김/4,500원

이 모든 것의 철학적 의미는?

T. 네이글 지음/김형철 옮김/2,500원

서양의 지혜

B. 레셀 지음/이명숙, 박강재 옮김/13,000원

철학의 뒤편길

W. 바이세델 지음/이기상, 이말숙 옮김/6,500원

철학에의 초대

오너, 헛트 지음/박신환, 윤찬원 옮김/6,000원

윤리학

윤리학의 기본 원리

P.W. 테일러 지음/김영진 옮김/6,500원

현대도덕철학

D.D. 라파엘 지음/김영철, 김우영 옮김/4,200원

에티카

B. 스피노자 지음/강영계 옮김/6,500원

사회정의론

J. 롤즈 지음/황경식 옮김/13,000원

가치론

J. 헤센 지음/진교훈 옮김/8,500원

동양철학

감산의 莊子 풀이

감산 지음/오진탁 옮김/5,500원

주역의 이해 : 주역의 자연관과 인간관

곽신환 지음/6,500원

공자의 생애와 사상

카이즈카 시게키 지음/박연호 옮김/3,500원

감산의 금강경 풀이

감산 지음/오진탁 옮김/4,000원

사단철정론

민족과 사상 연구회 편/10,000원

종교학

종교다원주의와 세계종교

H. 카워드 지음/한국종교연구회 옮김/5,000원

상징, 신성, 예술

M. 엘리야데 지음/박규태 옮김/6,500원

종교간의 대화

R. 파니카 지음/김승철 옮김/4,000원

종교사회학

오경환 지음/8,000원

종교교육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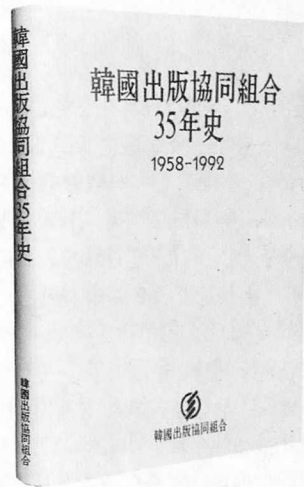
J. 실리 지음/강돈구, 박진원 옮김/4,000원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

자료 중심의 정직한 역사책

「한국출판협동조합 35년사」



「韓國出版協同組合 35年史」가 출간됐다.

국내 유일의 도서 공판기구로 309개 출판사를 조합원으로, 252개 서점을 특약점으로 망라하고 있는 한국출판협조합(이사장 이기용)이 최근 협동조합 35년의 역사를 정리한 자료집 「한국출판협동조합 35년사」를 펴내 책의 해를 맞은 출판계 안팎의 주목과 환영을 받고 있다. 4×6배판 510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변변한 出版社 韓國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우리 출판계 사정을 감안할 때 거의 이례적일 정도로 충실하고 정확한 자료들이 구사되고 있어 특히 관심을 끄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단순히 한 조합의 역사일 뿐 아니라 한국 현대출판의 발전사까지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 공동선을 창출하고자 했던 출판인들의 생생한 증언과 기록들을 모은 '자료 중심의 정직한 역사책'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이 책은 모두 10장에 이르는 본문 및 부록들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과 2장은 협동조합 창립의 前史로서, 먼저 제1장에서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은 출판계의 一般史를 개괄적으로 조망한 다음, 제2장에서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상황에는 불구하고 뜻있는 출판인들이 모여 협동조합의 모태가 된 '동인친목회'를 결성하던 당시의 이야기들이 정리돼 있다. 제3장은 1958년 마침내 '사단법인' 한국출판협동조합이 탄생하던 때의 이야기를, 그리고 제4장은 사단법인의 중소

기업협동조합으로의 개편을 다루고 있으며, 각각 '신문로 시대'와 '신수동 시대'로 장을 나누는 제5장과 6장에서는 협동조합이 터전을 잡고 본격적인 사업을 벌여나가던 때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다.

제6장까지가 말 그대로의 협동조합 35년 사인데 비해 제7장부터 10장까지는 협동조합이 시행했거나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중점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가령 제8장에서는 협동조합 활동의 두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도서공급과 여신사업의 구체적인 내역과 발전과정이, 제9장에서는 현재의 협동조합을 발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여러가지 논의와 제안들이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돼 있다. 부록으로는 상세한 연표를 비롯해 정관, 각종 규약, 조합원 및 특약서점 명부, 조합원 공급실태 등을 덧붙이고 있다.

만나야 했다. 나이 서른에 의사로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류양선씨는 “내 아이는 공부 많이 시켜 대학교수를 만들어야겠다”는 꿈마저 한꺼번에 버리는 고통에 몸부림쳐야 했다.

자식 못낳는 죄책감과 남편과의 생이별이란 이중의 설움은 그를 꾀꾀한 여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바느질 품을 팔아 모은 얼마간의 돈으로 그는 서부역에서 생선장사를 시작했고, 이어 젓갈로 품종을 바꿔 노랑진수산 시장으로 옮겨 앉아 억척스럽게 일했다. 바로 그때쯤 류양선씨에게 딸자식이 생겼다. 물론 친딸은 아니었다. 누군가 돌도 채 안된 순애를 대문 앞에 데려다 놓았고, 그는 남편의 호적에 올려 친딸 이상으로 정성을 쏟아 키웠다. 한동안 버렸던 자식에 대한 꿈을 친운으로 되찾은 류양선씨에게 그때만큼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

호사다마라 했던가. 난생 처음으로 즐거움에 젖어 힘든 줄도 모르고 장사와 딸자식 키우는 데 전념하던 그에게 이제까지의 어떤 고통보다도 더한 시련이 찾아왔다. 딸 순애가 국민학교 4학년이던 해에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손과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좌절을 모르는 그는 그후로 사랑의 손길을 더욱 넓혀나갔다.

재활원이나 장애자 복지기관에까지 책꾸러미를 보내야 했고, 그러기 위해 그는 다시한번 악착같이질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먹는 것 입는 것 탐하지 않고 버는 족족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억척스러운 면에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시장통 이준마들

의 눈에도 그는 좀 과하다 싶었던지 심한 따돌림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류양선씨의 선행이 알려지자 그들도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감사의 편지 읽는 게 유일한 낙

선행이든 악행이든 비밀로 남지는 않는 법인가 보다. 행여 알려져 번거로워질까봐 걱정하던 그의 뜻있는 일이 알려져 89년 10월 제1회 서울시민상을 수상했고, 한국어린이재단과 금성출판사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으며, 지난 3월 9일 책의해조직위원회로부터 책의 인물 선정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에게 고맙고 힘이 되는 건 자신에게 책이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보내주는 감사의 편지글에 묻어나는 그들의 마음이다. 많게는 하루에 90여통의 그런 편지를 받았다는 류양선씨는 특히 한 여학생을 잊지 못했다.

“등록금이 없어 대학진학을 포기하려던 한 여학생을 도와주었더니 나도 없는 집에 와서 우리 딸에 밥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잡은 것만 해도 난 그저 고마운데...”

사는 게 힘들었던 탓인지 그의 얼굴엔 되레 넉넉한 웃음이 넘친다.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 받는 공작은 젓갈과 닮은 류양선씨는 “올해를 책의 해로 선정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곧은 잇속을 드러내며 말한다. 그보다 책의 해를 맞아 책의 인물 1호로 류양선씨를 선정하게 더 잘한 일일 것이다.

— 최태원 기자

“그 책 읽어 봤어?”

“재미는 있지만 별로 얻을 게 없어!”

“좋은 책이지만 솔직히 재미는 없더군.”

늘 한구석이 허전한 독서... 그러나 이제부터 정신세계사의 책으로 후회없는 책읽기를 경험하십시오

식물의 정신세계

식물의 놀라운 정신세계! 꽃에게 영혼이 있다는 시인들의 직관을 과학으로 증명한 책! 흥미로운 실험과 그 뒷이야기들, 방대한 참고문헌. “참으로 흥미롭고 감동적인 책.....”
아! 이 겨울에 불일암 후박나무는 별고없이 잘 있는가? (法頂 스님)

피터 톰킨스 외 / 황정민 외 옮김 / 504면 / 7,500원

장편소설 神의 뜰에서 놀며

아마존의 오지로 들어간 백인들이 맞닥뜨린 것은? 그들의 총과 성경책은 쓸모 없는 쇠덩어리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용병과 선교사, 원주민과 그들을 지배하는 스페인 식민주의자의 후예들, 칼잡이, 창녀, 백인의 神과 인디오의 神들이 펼치는 아마조나스의 서사시. 대자연과 인간의 존엄을 그린 미국 문단 거장의 야심작.
피터 매티센 / 김석희 옮김 / 전2권 / 각권 4,500원

세계의 공동체마을들

뜻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공동체 마을들. 잃어버린 삶의 본질을 찾아 인류 미래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의 마을 열여덟 곳을 직접 가본다. 참된 노동과 헌신,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는 책.

올리버 포피노 외 / 이천우 옮김 / 376면 / 6,0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정신세계 전문서점 「책방 정신세계」 741-7033 (통신판매 회원제 운영)